

통합과 VIEW 사역의 국제화 비전



양승훈 VIEW 원장

지난 여러 해 동안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은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Trinity Western University의 ACTS 신대원에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 과정(1999년 시작)과 디플로마 과정(2002년 시작)을 개설, 운영해 왔다. 그간 이 두 프로그램을 통해 총 91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었으며, 동문들(9학점 이상 정식 수강한 사람들)은 200명을 넘는다. 지난 4월 18일, 제 8회 VIEW 졸업식(ACTS는 21회 졸업식)을 통해 11명이 졸업했기 때문에 현재 3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금년 9월 학기가 되면 4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지원자들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VIEW 세계관 사역을 국제화할 시기가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학연과 DEW의 통합은 세계관 운동의 국제화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리라 본다. 통합의 시기와 VIEW의 국제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VIEW를 중심으로 세계관 운동의 국제화 방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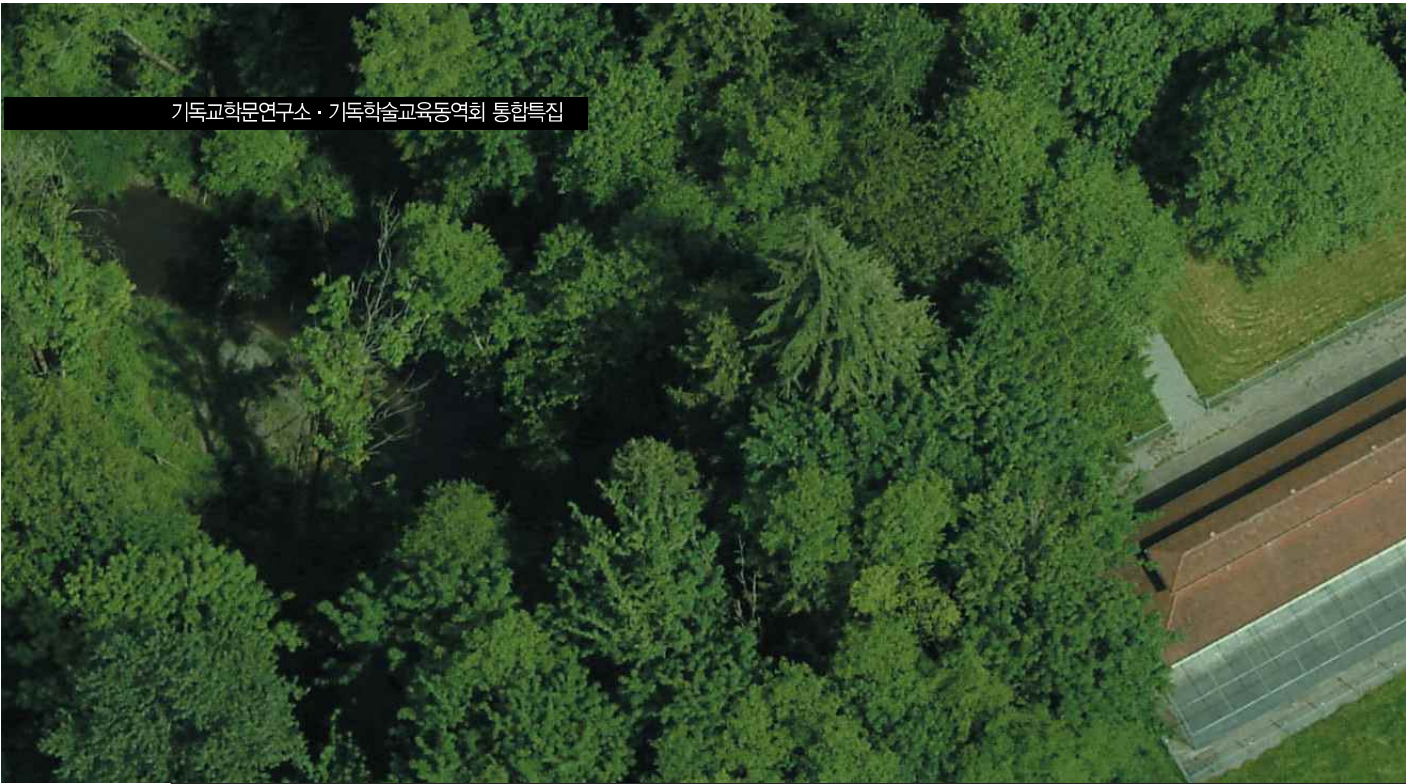
I. Gloversity Project

지난 1년 반동안 논의해 오던 2009년 3월 18일 BC

주 사립대학연합체이자 허가기관인 PCTIA에 제출되었으며, 4월 17일자로 인가를 받았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국제화를 위해 시작하는 새로운 세계관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DiWaLI(Diploma in Worldview and Life Issues)라고 명명하며, DiWaLI를 포함한 전체 국제화 프로젝트는 “Gloversity”로 명명했다. Gloversity는 “지구촌대학”(Global University)이란 영어 단어의 일부를 떼어 만든 조어로서 지구촌에 퍼지게 될 기독교 세계관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칭한다. 지난 1년 반동안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듬은 Gloversity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지금까지 VIEW 훈련 프로그램의 개념을 확 바꾼 것이다:

1. 윈-윈전략(Win-win Strategy)

Gloversity는 기독교 기관, 선교단체, 교회와 같은 파트너들을 돕는 프로젝트이다. 개별단체가 제대로 된 대학원 수준의 세계관 훈련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VIEW는 Gloversity를 통해 파트너가 필요로 하는 세계관 강의와 훈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파트너들과 더불어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VIEW는 Gloversity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세계관 대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축적



된 행정경험과 강의, 국내외 최고의 교수진들을 파트너들과 아낌없이 나눈다. 또한 VIEW는 든든한 행정적인 우산과 엄격한 학사관리,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제공한다.

2. 접근성(Accessibility)

Gloversity는 세계관 훈련을 받으러 학생들이 밴쿠버까지 오라고 하는 종래의 개념에서 나아가 전 세계 어디라도 학생들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간다. 기존 ACTS 디플로마 및 MACS 과정처럼 자신의 직장을 떠나 가족들을 데리고 밴쿠버까지 와서 1년 이상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세계관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 중 불과 20% 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VIEW의 사명이 섬기는 지도자를 기르는 것이라면 VIEW가 학생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인간의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는 것이다.

3. 학생위주(Customization)

Gloversity는 그 동안 VIEW에서 개발한 20여개 강의 중심의 훈련으로부터 나아가 기관이나 지역, 혹은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세계관 훈련을 제공한다.

기존의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싶었지만 제도적으로 그럴 수 없었던 탐사여행도 Gloversity에 포함될 것이다. Gloversity의 DiWaLi 과정은 졸업에 필요한 총 12학점(총 80시간) 중 세계관 기초에 해당하는 6학점(40시간)은 VIEW에서 제공하고, 나머지 6학점(40시간)은 해당 지역이나 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된다. 그리고 캠퍼스들 간에 강의를 호환되게 하여 학생들은 원하는 강의를 어디에서라도 수강할 수 있다.

4. 다양성(Variety)

Gloversity에서 학생위주의 강의들을 개발한다는 것은 VIEW 강의를 훨씬 더 다양해짐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VIEW는 주로 세계관 기초훈련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기초와 적용이 절반씩 균형을 이루게 된다. 예를 들어 VIEW가 제공하는 기존의 기초 강의에 더하여 산호세나 싱가포르에는 IT관련 세계관 강좌를, 일리노이 대학이 있는 샴페인 등지에는 학문과 신앙의 통합 강좌를, 북경에는 동양(중국)사상 관련 세계관 강좌를, 런던에는 여러 박물관을 활용한 세계관 및 창조론 훈련 필드트립 강좌를, 지역 교회 지도자 훈련을 위해서는 기독교 리더십 훈련 강의들, 선교기관들은 다문화 선교 훈련 강의들이



항공촬영을 통해 보는 캐나다 밴쿠버의 VIEW 전경

개발, 제공될 것이다. 모든 강의들은 통일된 수준과 포맷을 유지할 것이다.

5. 저비용(Affordability)

Gloversity의 DiWaLI 과정은 밴쿠버까지 와야 하는 기존의 VIEW 프로그램들에 비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ACTS 산하 VIEW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학비만 총 C\$13,000(학점 당 C\$400)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VIEW 프로그램이 ATS의 학력 인가를 받는, ACTS 신대원에 속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하지만 DiWaLI 프로그램은 Quality를 별로 손상시키지 않고 학점당 C\$150불의 비용으로 정상적인 세계관 교육을 제공한다. 총 12학점을 모두 마치기 위해서는 학비(C\$1800)와 부대 경비(C\$400)를 합쳐 총 C\$2,200이 소요된다(필드트립 등이 포함되면 여비 실비 추가). 물론 이것도 아주 싼 것은 아니지만 캐나다의 정상적인 고등교육 비용을 생각한다면 매우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10여개 이상의 기관과 지역, 개인들이 Gloversity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알려졌다. 10년 이내에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내외의 캠퍼스를 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학연과 DEW가 통합하게 되면 많은 교수들이 Gloversity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DiWaLI에 대한 PCITIA의 최종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곧 Gloversity 운영 매뉴얼과 지역 학장 임명, 캠퍼스 선정 작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II. Master in Worldview Studies(MWS) Project

2010년 9월에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MWS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북미주신학교협의회(ATC)에서 학력인가를 받는 현재의 MACS 과정(53학점 + 선수과목 4학점)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높은 토폴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디플로마 과정(29학점 + 선수과목 4학점)은 정식 학위과정이라 아니어서 역시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TWU 학력인가를 받는 MWS는 선수과목을 모두 합쳐서 36학점이며, 신대원 출신자들은 현재 디플로마와 같은 부담으로, 그 외 학생들은 현재 디플로마 학점에서 3학점만 더 추가하면 된다. MWS가 시작되면 기존의 디플로마 과정과 MACS 과정은 종료한다.



III. Doctor of Ministry in Leadership and Worldview(DMLW) Project

현재 ACTS 컨소시엄 멤버인 Northwest Baptist Seminary와 TWU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VIEW가 실질적인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한국인 지도자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DMLW는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세계관 이름으로 개설되는 박사과정이다. 입학자격은 M.Div. 혹은 M.Div. 동등학위 소지자로 한다. DMLW에서는 전통적인 D.Min.에 비해 신대원 출신자들 뿐 아니라 일반대학 출신자들도 일정부분 신학적인 훈련을 받고 대학원 수준에서 취득한 학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문을 열 것이다. 일터의 제사장, 만민 제사장을 양성한다는 기독교 세계관 정신을 반영하는, 최초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개방되는 DMLW이다.

위와 같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 국제화를 위해 VIEW에서는 2010년 1월부터 2명의 전임교수를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VIEW Office가 위치한 TWU 캠퍼스 내 Fosmark Centre에 추가적인 Office를 확보했으며, 현재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